



■ 라틴 소울 - 박창학의 지구 반대편 음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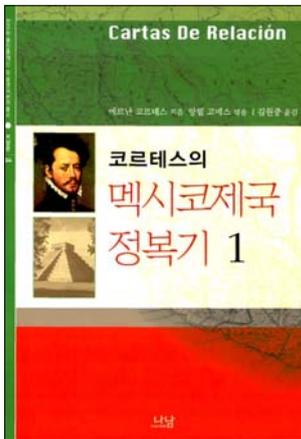
박창학 (지은이)
 출판사 : 바다출판사
 출간일 : 2009-03-27
 ISBN(13) : 9788955614824
 반양장본| 448쪽| 210*148mm (A5)

박창학의 음악 에세이. 저자의 말처럼 “마음 가는 대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집에 있는 CD들을 하나씩 꺼내 들어 보고 싶어지는” 책이다. 특히 브라질 보사노바의 거장들과 아르헨티나의 피아솔라에 관한 음악, 악기, 뮤지션, 앨범 등 풍부하고 실용적인 정보는 쿠바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펼쳐든 독자가 느낄 지도 모르는 아쉬움을 몇 배로 보상하고도 남는다.□

책에서 한 구절

“대중음악과 고전 음악을 막론하고 현재 모든 음악 체계의 기준이 되어 있는 서유럽의 음악적 사고 및 기술과 악기를 토대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완성된 음악이 자신들 음악적 정체성의 근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이것이 이들과 우리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다.” (본문 54쪽)

■ 코르테스의 멕시코제국 정복기 (전 2권)



원제: Cartas de Relación

에르난 코르테스 (지은이), 앙헬 델가도 고메스 (역은이), 김원중 (옮긴이)

출판사 : 나남출판

출간일 : 2009-01-05

ISBN(13) : 9788930083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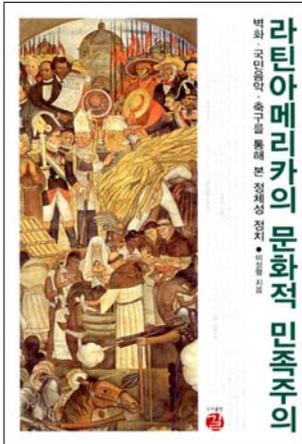
양장본 | 463쪽 | 235*160mm

1521년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한 에르난 코르테스는 주군이자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카를로스 5세에게 정복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여러 차례 보고했다. 그 보고서를 완역한 이 책은 정복 당시의 아스테카와 원주민세계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기본서이자 필독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콜럼버스가 그랬듯이, 정복한 땅과 원주민들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려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각 주, 해제 등 역자의 노고가 묻어나는 학술 번역서인데, ‘멕시코제국’이라는 엉뚱한 제목이 붙어 유감스럽다.□

책에서 한 구절

“그러므로 폐하, [...]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성격을 잘 설명해줄 통역사만 있다면 원주민들 대부분은, 아니 그들 모두는 머지않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우리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곧 깨닫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보아온 다른 어떤 종족보다도 더 문명화되고 더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권 65쪽, ‘첫 번째 보고서’)

■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



이성형 (지은이)

출판사 : 길

출간일 : 2009-03-02

ISBN(13) : 9788987671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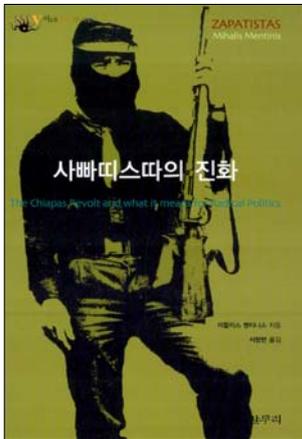
반양장본 | 290쪽 | 223*152mm (A5신)

민족주의 연구와 관련, 베네딕트 앤더슨의 그림자는 아직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상상의 공동체』가 바로 그 영향력의 핵심이다. 앤더슨의 민족적 정체성 탐구는 주로 인쇄 자본주의 시대의 엘리트 프로젝트로 이해되어, 동일한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생산하는 데 소설이나 신문 매체가 지닌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엘리트만의 게임이 아니라 대중동원도 요구되며, 대단히 이질적인 종족 간 분열과 문화적 유산의 통합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런 경우 대중들에게는 문자매체가 아닌 종교적 상징이나 음악과 미술, 건축물, 춤 등의 예술작품이 더 큰 호소력을 갖는다. 특히 문맹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넘는 20세기 초의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저자 이성형은 라틴아메리카 일상 삶의 영역, 즉 축제·의례·음악·미술·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적 이벤트가 국민의 발명에 끼친 영향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천착하고 있다. 특히 7장에서는 축구가 라틴아메리카 세 국가(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의 국민적 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정체성 정치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어서 일독을 권한다.□

■ 사빠띠스따의 진화



원제: Zapatistas

미할리스 멘티니스 (지은이), 서창현 (옮긴이)

출판사 : 갈무리

출간일 : 2009-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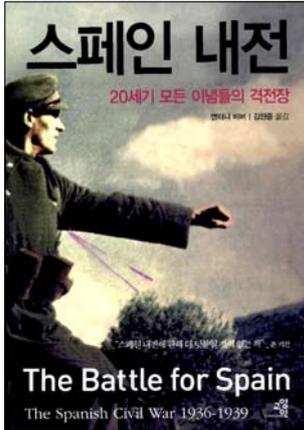
ISBN(13) : 9788961950121

양장본 448쪽 | 198*135mm

1994년 1월 1일 새벽, 멕시코 남동부 치아파스 주에서 원주민들이 경무장을 하고, 검은 스키마스크나 붉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이 반란군은 스스로를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으로 불렀으며, 원주민들에게 가해진 수백 년에 걸친 억압과 착취,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현실의 죄악상, 그리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토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이야기했다.

2009년은 치아파스 반란이 일어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자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인류의 존엄성을 옹호하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파티스타의 운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2001년 1월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은, 사파티스타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인류를 옹호하기 위한 대륙간 회의’의 정신을 잇고 있다. 1999년 12월 시애틀 WTO 각료회의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꾸준히 전개된 반세계화 시위는 사파티스타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있다. 『사빠띠스따의 진화』는 사파티스타 운동을 치밀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오늘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사파티스타의 새로운 정치철학적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

■ 스페인 내전 - 20세기 모든 이념들의 격전장



원제: The Battle for Spain
 앤터니 비버 (지은이), 김원중 (옮긴이)
 출판사 : 교양인
 출간일 : 2009-05-01
 ISBN(13) : 9788991799424
 양장본 | 832쪽 | 235*170mm

스페인 내전(1936~1939)은 이념과 계급과 종교가 뒤엉켜 폭발한 전쟁이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파시즘 등 온갖 정치 이념들의 격전장이었으며, 자본가·지주 계급과 노동자·농민 계급이 맞붙은 계급 전쟁이었다. 또한 스페인 민중과 민중을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가톨릭 교회가 격돌한 종교 전쟁이었다.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 전쟁터로 뛰어든 3만 5천 명의 국제여단 병사와 말로, 오웰, 헤밍웨이, 생텍쥐페리, 네루다, 피카소 등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전함으로써 스페인 내전은 불굴의 용기, 숭고한 이념, 전 세계 양심의 투쟁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혁명적 이상의 좌절과 환멸, 배신과 분열은 이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스페인 내전 연구의 권위자인 영국의 전쟁사학자 앤터니 비버는 이 책에서 스페인 내전의 전모를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세밀하게 조망함과 동시에 승패를 가른 결정적 전투의 현장들을 다큐멘터리 같은 생생한 필치로 재현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왜 공화 진영이 그토록 열렬한 세계 여론의 지지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얻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끝없이 논란이 된 의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는다.□